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81



# Contents

---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2.26~2026.03.04

##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 1
- 경제·관광 ..... 2
- 지역·사회 ..... 2

##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10

##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예비후보(경선/오영훈), 미래, 평가, 청년, 유치
경제·관광	판매, 항공(노선), 생산, 수출, 관광객
지역·사회	경기, 나무, 운항, 위반, 건강

※ 분석 기간 : 26.02.26.~26.03.04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예비후보(경선/오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지사 경선 감점 논란과 3파전 구도</li> <li>- 도의원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본격화</li> <li>- 예비후보 간 지역 현안 중심 정책 대결</li> </ul>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력 도지사 후보들의 미래구상 세 대결</li> <li>- 2035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에너지 대전환</li> <li>-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옥외광고 친환경화</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당 광역단체장 하위 20% 평가 파장</li> <li>- 청렴도 평가 하락에 따른 교육행정 쇄신론</li> <li>- RISE 사업 성과 평가 및 대학 지원 고도화</li> </ul>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청년플랫폼 개편 통한 맞춤형 정책 지원</li> <li>- 청년 정치 신인 발굴을 위한 공천 가산점 부여</li> <li>- 청년 인구 유출 대응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li> </ul>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 출범</li> <li>-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국제항공노선 확충</li> <li>- 국제 물류 항로 안정화 위한 제주항 화물 유치</li> </ul>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큰 폭 감소</li> <li>- 농협 채소조공법인 2천억 판매 목표</li> <li>- 서귀포인정 만감류 온라인 판매 활성화</li> </ul>
	항공(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인천 직항노선 10년 만에 재개</li> <li>- 통합에 따른 김포~제주 13편 LCC 이관</li> <li>- 직항 전세기 및 모객 광고 지원사업</li> </ul>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제주 광공업 생산지수 4.6% 상승</li> <li>- 제주 어업 생산량 5년 만에 반등</li> <li>- 월동채소 생산량 증가와 수급 조절</li> </ul>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제주 수출 전국 최고 증가율 기록</li> <li>- 반도체 및 항공기 부품 수출 주도</li> <li>- 농수산물 수출 완만한 상승 및 품목별 명암</li> </ul>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 설정</li> <li>- 해외 관광객 유치 전세기 지원사업</li> <li>- 2분기 시니어 관광객 봄철 여행 수요 집중</li> </ul>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재정 3395억 원 신속 집행</li> <li>- 제주SK FC 홈 개막전 흥행 및 인종차별 논란 엄정 대응</li> <li>- 제107회 전국체전 대비 연정정구장 시설물 집중 정비</li> </ul>
	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중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논란</li> <li>- 식목일 기념 내 나무 갖기 묘목 1만여 본 무료 분양 행사</li> <li>- 봄철 감귤 나무 파쇄 및 전정 작업 시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li> </ul>
	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자도 대체 선박 엔젤호의 잦은 결항 및 주민 생존권 위협</li> <li>- 제주 전역 강풍 특보에 따른 항공기 및 여객선 대거 차질</li> <li>- 제주 해상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나포 및 어업 질서 확립</li> </ul>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유통 질서 교란 업체 적발</li> <li>- 현직 경찰관의 성비위 및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한 엄정 수사</li> <li>- 구급대원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 사범 검찰 불구속 송치</li> </ul>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튼튼백세 건강교실 및 프로젝트 운영</li> <li>- 제주한라병원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선정 및 대응력 강화</li> <li>- 모바일 앱 활용 '탐나는 걷기 챌린지'를 통한 건강 문화 확산</li> </ul>



	<p><b>예비후보 (경선/오영훈)</b></p>	<p>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도의원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본격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는 6월 치러지는 제주도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30명, 국민의힘 5명, 기타 정당 및 무소속 10명 등 총 45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으며, 특히 야당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각 지역 구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됨.</li> <li>· 교육감 선거의 경우 출마가 유력시되던 현직 교육의원 2명이 연이어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광수 현 교육감과 고의숙 교육의원, 송문석 전 교장의 3파전 구도로 압축 재편되어 각 후보 진영의 세 확산 및 득표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임.</li> </ul> </li> <li>- <b>예비후보 간 지역 현안 중심 정책 대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오랜 갈등을 빚어온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여부를 비롯해 서광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 개편과 같은 지역 내 핵심 현안을 두고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날선 정책 경쟁과 여론전을 펼침.</li> <li>· 교육감 예비후보들 역시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교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제주형 IB 교육의 단계적 확대 등 산적한 교육 현안에 대한 각자의 진단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잇따라 제시하며, 도민과 학부모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지지세 확장에 주력함.</li> </ul> </li> </ul>
<p><b>정치·행정</b></p>	<p><b>미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유력 도지사 후보들의 미래구상 세 대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력한 도지사 경선 후보인 위성곤 의원과 오영훈 지사가 같은 날 한라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불과 1시간의 간격을 두고 각자의 제주 미래 비전을 담은 저서 출판기념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지지층 결집과 세 과시를 위한 치열한 당내 기싸움 양상을 뚜렷하게 드러냄.</li> <li>· 출판기념회에서 위성곤 의원은 제주과학기술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AX(인공지능) 대전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오영훈 지사는 민간 우주산업 육성과 청정에너지 대전환 등 민선 8기 도정이 추진해 온 제주형 미래산업의 청사진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li> </ul> </li> <li>- <b>2035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에너지 대전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는 제7차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통해 재생에너지 대규모 보급과 전 분야 전전화 확대 등 청정에너지 중심의 녹색 삶의 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였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과제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함.</li> <li>·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내 주요 사회복지시설 및 자연휴양림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재활용 배터리를 결합한 RE100 플랫폼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주형 에너지 전환 선도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li> </ul> </li> <li>- <b>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옥외광고 친환경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의 고유한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5개년 로드맵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분산된 지원 정</li> </ul> </li> </ul>

<b>정치·행정</b>	<b>미래</b>	<p>책을 통합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유망 앵커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제주형 크리에이터 경제를 활성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와 함께 무분별한 행사 현수막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옥외광고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 관리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과 더불어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 도시 경관 조성을 동시에 도모할 방침임.</li> </ul>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민주당 광역단체장 하위 20% 평가 파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 명단에 포함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이의신청이 최종 기각됨에 따라, 당내 경선에서 득표율의 20%를 삭감당하는 큰 불이익을 안고 선거전을 치러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며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음.</li> <li>·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번 하위 20% 감점 평가가 오 지사의 무책임한 도정 운영과 선심성 정치 행보가 자초한 당연한 결과라며 맹비난하고, 변명이나 이의신청에 앞서 도민들에게 먼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정치적 공세를 취함.</li> </ul> </li> <li>- <b>청렴도 평가 하락에 따른 교육행정 쇄신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5년간 전국 최상위권을 굳건히 유지해 오던 제주도교육청의 청렴도 평가가 최근 3등급으로 추락한 상황을 두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현 교육당국의 행정 난맥상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강도 높은 조직 쇄신 요구가 거세게 제기됨.</li> <li>· 고의숙 교육감 예비후보는 무너진 청렴도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계약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청렴계약 포털 시스템 구축, 비리 적발 시 부당 업체와 공직자 연대 책임제 도입 등 인사와 계약 전반에 걸친 강력한 행정 혁신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움.</li> </ul> </li> <li>- <b>RISE 사업 성과 평가 및 대학 지원 고도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1차년도 성과 포럼을 개최하여, 런케이션(배움여행) 프로그램 운영 및 인공지능 융합 교육 등을 통해 대학과 지역 산업이 연계된 미래 인재 양성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li> <li>·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RISE 사업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며, 향후 도내 참여 대학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성과 지표 달성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급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성과 환류 체계를 도입할 예정임.</li> </ul> </li> </ul>
	<b>청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청년플랫폼 개편 통한 맞춤형 정책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동안 여러 행정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다양한 청년 정책 정보를 한곳으로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제주청년플랫폼'이 공식 출범하여, 청년들의 정책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중앙정부 플랫폼과의 원활한 연계도 가능해짐.</li> <li>·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 자동 추천 기능을 새롭게</li> </ul> </li> </ul>

<b>정치·행정</b>	<b>청년</b>	<p>게 도입하였으며, 단순한 상담 참여를 넘어 실제 정책 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질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여 실효성을 높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청년 정치 신인 발굴을 위한 공천 가산점 부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들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지방의회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35세 이하 청년 및 정치 신인 후보자들에게 당내 경선 시 득표율에 최대 20~25%의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특별 우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li> <li>· 이러한 정당 차원의 파격적인 청년 인재 발굴 및 진입 장벽 완화 정책에 힘입어, 도내 각 선거구에서는 젊고 역동적인 정치 신인들이 거대 양당은 물론 소수 정당의 간판을 달고 도의원 예비후보로 속속 등록하며 새로운 정치적 변화의 바람을 예고함.</li> </ul> </li> <li>- <b>청년 인구 유출 대응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지역 사회의 가장 심각한 현안 중 하나인 청년 인구의 도외 유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정치권과 행정 당국은 청년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 환경 안정을 위한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임.</li> <li>·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게 정착 주거비와 도약 장려금을 지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를 집중 육성하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함.</li> </ul> </li> </ul>
	<b>유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핵심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 출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100여 개 주요 기관 및 자생 단체가 연합한 범도민운동본부가 성대하게 출범하며 도민 역량을 총결집한 전사적인 대정부 유치 홍보 활동에 본격 돌입함.</li> <li>· 제주도는 지역의 특화 산업 및 전략 산업과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를 최우선 핵심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해양환경공단 등 총 5개 핵심 기관의 제주 이전을 이끌어내어 미래 성장 동력의 발판으로 삼고자 함.</li> </ul> </li> <li>- <b>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국제항공노선 확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체에 빠진 제주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부의 국가관광전략회의 방침에 적극 호응하여 운항이 중단되었던 인천공항-제주공항 간 직항 내항기 운항의 연내 재개를 추진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li> <li>· 이와 더불어 제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하는 국제 정기편 노선을 신규 취항하거나 증편 운항하는 국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최대 3억 원 등 총 9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장의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꾀함.</li> </ul> </li> <li>- <b>국제 물류 항로 안정화 위한 제주항 화물 유치</b></li> </ul>

정치·행정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막대한 적자 운영에 시달리는 제주-중국 칭다오 간 국제 화물선 항로의 물동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남 지역 등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수출 화물을 제주항을 거쳐 중국으로 반출하도록 유도하는 파격적인 해상 운송비 지원 사업을 전격 시행함.</li> <li>· 행정 당국은 참여 화주에게 컨테이너당 최대 70만 원에 이르는 물류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항만 내 취약한 냉장·냉동 인프라를 확충 개선하여,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개설 초기 단계인 국제 물류 항로를 조기에 안정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li> </ul>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판매, 항공(노선), 생산, 수출, 관광객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큰 폭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8.7% 급감하며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하락 폭과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함.</li> <li>· 신발 및 가방 품목의 판매는 다소 증가세를 보였으나, 화장품, 의복, 기타 상품 등의 전반적인 소비 부진이 대형마트의 심각한 판매 감소를 이끈 핵심 원인으로 분석됨.</li> </ul> </li> <li>- 농협 채소조공법인 2천억 판매 목표</li> </ul>
-------	----	---

경제·관광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농협채소조합공동사업법인이 이상기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지 유통 기능을 강화하여 올해 통합마케팅 목표 2천억 원 달성을 위한 경영협약식을 체결함.</li> <li>· 전문품목 취급액 확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품목별 연합회 연계사업 확대 등 통합 마케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농산물 판매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함.</li> </ul> <p>- 서귀포in정 만감류 온라인 판매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귀포시가 5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 황창연 신부와 협력하여 공식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의 만감류 소비 촉진 및 홍보 영상을 적극적으로 제작함.</li> <li>· 1차 영상의 큰 호응으로 단기간에 매출액이 7천만 원 이상 급증했으며, 향후 다양한 온라인 기획전 마케팅을 전개하여 제주 농특산물 전반의 판매 협력 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임.</li> </ul>
	항공(노선)	<p>- 제주~인천 직항노선 10년 만에 재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국가관광전략회의 방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지방 이동을 돕기 위해 2분기부터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을 잇는 직항노선이 10년 만에 다시 신설될 예정임.</li> <li>· 외국인 관광객이 김포공항을 경유해야만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해외여행을 위해 김포를 거쳐야 했던 제주 도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및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li> </ul> <p>- 통합에 따른 김포~제주 13편 LCC 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통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시정명령 조치로 인해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노선 슬롯 13편이 이스타항공 등 경쟁 저비용항공사로 이관됨.</li> <li>· 이번 조치로 대형 항공사 기준 하루 수백 석의 공급 감소가 예상되어 도민 이동 불편이 우려되나, 슬롯을 인수한 저비용항공사들의 대형기재 투입 상황에 따라 최종 좌석 총량이 결정됨.</li> </ul> <p>- 직항 전세기 및 모객 광고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해외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직항 전세기 운항 인센티브 및 아웃바운드 모객 광고비 지원사업을 추진함.</li> <li>· 제주와 정기 직항노선이 없는 해외 도시를 대상으로 전세기를 띄우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도내 여행업계의 모객 홍보 마케팅 활동 비용도 지원하여 노선 다변화를 꾀함.</li> </ul>
	생산	<p>- 1월 제주 광공업 생산지수 4.6% 상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 1월 광공업 생산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6%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출하지수 역시 0.6% 늘어나는 등 모처럼 활발한 산업 활동의 회복 흐름을 보임.</li> <li>· 고무 및 금속가공 분야의 생산은 부진했으나, 의약품, 식료품, 전기가스업 분야의 생산 증가가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으며 긍정적인 생산 활동 증가세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li> </ul>

<b>경제·관광</b>	<b>생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 어업 생산량 5년 만에 반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해 제주지역 원양어업을 제외한 연근해 및 양식 어업 생산량이 8만 1368톤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깨고 전년 대비 10.1% 증가하여 5년 만에 반등하는 성과를 거둠.</li> <li>· 해면양식업의 넙치류 생산량이 8.4%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연근해어업 생산량 또한 전년보다 상승해 전체 어업 생산 금액이 1조 4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4% 크게 증가함.</li> </ul> </li> <li>- <b>월동채소 생산량 증가와 수급 조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산 주요 제주 월동채소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대폭 늘어나면서, 월동무와 양배추 등을 포함한 전체 생산량 역시 전년 대비 31.1% 급증한 52만 8000톤에 이를 것으로 뚜렷하게 전망됨.</li> <li>· 제주도는 가격 하락 방지와 소비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년보다 증액된 79억여 원 규모의 자조금을 품목별 생산자연합회에 투입하여 자율적인 감축과 분산 출하 등 적극적인 수급 조절을 지원함.</li> </ul> </li> </ul>
	<b>수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1월 제주 수출 전국 최고 증가율 기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1월 제주지역 전체 수출액이 7312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월 대비 무려 324.5% 폭발적으로 급증하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수출 증가율을 달성함.</li> <li>· 홍콩, 미국, 대만 등 주요 국가로의 수출 물량이 집중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역 내 수출 호조 산업재의 강력한 성장세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폭발적인 전체 수출 실적 상승을 이끌어냄.</li> </ul> </li> <li>- <b>반도체 및 항공기 부품 수출 주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400.7% 급증한 3704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폭발적인 수출 증가세를 최선두에서 주도하는 핵심 품목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함.</li> <li>· 항공기 부품 수출 역시 전년 대비 1만 2172% 이상 비약적으로 급성장하며 반도체와 더불어 제주 수출 경제를 떠받치는 양대 핵심 주력 축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눈부신 수출 성과를 기록함.</li> </ul> </li> <li>- <b>농수산물 수출 완만한 상승 및 품목별 명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농수산물 전체 수출액은 3.4% 소폭 늘어나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 중에서 넙치 및 수산 가공품의 선전에 힘입어 수산물 부문 수출액이 17.4% 눈에 띄게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냄.</li> <li>· 반면 농산물 수출의 경우 과실류와 가축 육류 수출이 뚜렷한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음료 및 채소류의 극심한 판매 부진 여파가 크게 작용하여 전체 농산물 수출액은 22.6% 급감함.</li> </ul> </li> </ul>
	<b>관광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6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 설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방한 관광 활성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제주도는 이에 발맞춰 총 6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li> <li>· 새롭게 신설되는 인천 직항노선을 적극 활용하여 인천공항 내 제주 관광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노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모션 전략을 수립하</li> </ul> </li> </ul>

경제·관광	관광객	<p>여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 방문을 극대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관광객 유치 전세기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글로벌 관광 시장의 수요 확대를 위해 직항 전세기 운항 여행사에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여행업계의 아웃바운드 모객 광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li> <li>· 정기 직항이 없는 해외 도시를 집중 공략하여 전세기 운항을 장려함으로써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다변화된 해외 관광객을 제주로 직접 유입시켜 지역 관광 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함.</li> </ul> </li> <li>- 2분기 시니어 관광객 봄철 여행 수요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항공사 데이터 분석 결과, 따뜻한 봄철인 2분기에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60~70대 '액티브 시니어' 관광객의 탑승 수요가 여름 성수기보다 무려 21.3% 더 높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li> <li>· 항공권 가격이 합리적이고 인파가 덜 몰리는 비성수기를 선호하는 시니어층의 합리적 소비 특성이 크게 반영되었으며, 기후가 온화한 중화권 등 근거리 노선 및 제주 여행 수요가 뚜렷한 증가 흐름을 보임.</li> </ul> </li> </ul>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경기, 나무, 운항, 위반, 건강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재정 3395억 원 신속 집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교육청의 상반기 신속 집행 대상액 4527억 원 중 75%인 3395억 원을 목표로 설정함.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재정집행점검단을 운영하여 학교운영비와 목적사업비 등 학교회계 전출금을 1분기 내 조기 교부함으로써 신학기 학교 운영의 안정화와 더불어 침체된 제주 지역 민생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 방침 수립임.</li> <li>· 투자 분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선금 및 기성금 지급을 확대하고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와 수의계약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 한정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신속한 자금 공급으로 건설업 등 지역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하려는 교육당국의 강력한 의지 반영임.</li> </ul> </li> <li>- <b>제주SK FC 홈 개막전 흥행 및 인종차별 논란 엄정 대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시즌 K리그1 홈 개막전에 굶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작년 평균을 상회하는 8891명의 관중이 운집하며 흥행에 성공함. 라운지 테이블석 신설 및 푸드코트 존 강화 등 팬 친화적 시설 리뉴얼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축구장 가치를 증명하며 지역 스포츠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팬들의 뜨거운 열기를 재확인함.</li> <li>· 경기 중 퇴장당한 이탈로 선수를 향한 SNS상의 인종차별적 비난에 대해 구단 차원의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임. 선수와 가족을 향한 혐오 표현이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아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선수를 보호하며 건강한 축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프로축구연맹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인종차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강구임.</li> </ul> </li> <li>- <b>제107회 전국체전 대비 연정정구장 시설물 집중 정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소프트테니스 경기장인 연정정구장의 임시 휴장 및 시설 보수임.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코트 재질 변경, 노후 관람석 교체, 배수시설 보강 등을 진행하며, 1984년 준공 이후 노후화된 시설을 국제 규격과 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 정비하여 선수들에게 최상의 경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li> <li>· 6월 말까지 이어지는 공사 기간 동안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시공과 철저한 품질 관리에 집중함. 이번 정비를 통해 대규모 스포츠 행사의 안정적인 개최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대회 종료 후에도 도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체육 인프라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려는 취지임.</li> </ul> </li> </ul>
	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중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논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조천읍 일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현장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제주고사리삼과 희귀식물 새우난초 서식지가 중장비 투입으로 훼손됨. (사)꽃자왈사람들은 사전에 서식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장비 진입과 수목 벌채로 암석이 파헤쳐지고 군락지가 짓밟히는 등 산림청 및 환경 보호 기준을 무시한 무책임한 공사 방식에 대해 강력 비판함.</li> </ul> </li> </ul>

지역·사회	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자왈 보전을 위해 시민 기금으로 매입한 부지까지 포함된 이번 훼손 사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촉구임. 재선충 방제라는 명목하에 꽃자왈의 고유한 생태계와 희귀 식물의 생육 환경이 파괴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중장비 사용 제한과 세밀한 현장 모니터링 체계 도입이 시급하며, 행정 당국의 환경 보호 의식 결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책임 규명 요구임.</li> <li>- <b>식목일 기념 내 나무 갖기 묘목 1만여 본 무료 분양 행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1회 식목일을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단감, 사과, 대추, 앵두 등 유실수와 실내 공기 정화 식물 1만 200본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행사 개최임. 서귀포시청 제2청사와 5개 읍면 지역에서 동시 진행되며, 1인당 최대 3본까지 선착순 분양을 통해 도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며 탄소흡수원 확충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 제공임.</li> <li>· ‘반려나무 성장일기’ 공모전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병행을 통해 지속적인 나무 가꾸기 문화 확산 도모임. 작년 분양받은 나무의 성장 사례를 공유하여 우수 참여자에게 레몬나무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통해 단순 분양을 넘어 애착형성과 관리 책임을 강조하며, 제주 자생식물인 황근 분양을 포함하여 지역 고유 식물자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행동 변화 유도임.</li> </ul> </li> <li>- <b>봄철 감귤 나무 파쇄 및 전정 작업 시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귤 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을 맞아 파쇄기와 전동가위 사용에 따른 손가락 절단 및 끼임 등 중대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 고취임. 최근 3년간 관련 사고가 159건에 달하며, 특히 농기계 조작에 서툰 고령농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농업기술원이 현장 지도와 안전 캠페인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 중심의 활동 전개임.</li> <li>· 도내 접합 수술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골든타임 확보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작업 수칙 준수 강력 권고임. 장비 점검, 보호구 착용, 2인 1조 작업 등 기본 원칙 이행과 더불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송 체계 숙지가 필요하며, 고령농을 위한 무상 파쇄 대행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노동 강도를 낮추고 농업 현장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농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만전임.</li> </ul> </li> </ul>
	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추자도 대체 선박 엔젤호의 잦은 결항 및 주민 생존권 위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추자 항로에 투입된 280톤급 대체 선박 엔젤호가 노후화와 규모 미달로 인해 작은 바람에도 운항을 중단하며 60일 중 실제 운항이 20일에 그치는 등 주민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됨. 기존 3500톤급 산타모니카호의 부품 수리 지연과 선사 측의 경영난을 이유로 투입된 소형 선박이 화물 수송 불가와 잦은 결항 문제를 야기하며 추자 지역의 1일 생활권을 붕괴시킴.</li> <li>· 선사 측의 사업권 양도 및 폐업 통보에 따른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요구임. 주민들은 선사가 교통권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진도 노선 유지와 대형 쾌속선의 조속한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 제주도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예산 지원과 제도 검토를 병행하며 안정적인 해상 교통 인프라 확보를 위한 장기적 대책 강구임.</li> </ul> </li> <li>- <b>제주 전역 강풍 특보에 따른 항공기 및 여객선 대거 차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간풍속 20m/s 이상의 태풍급 돌풍과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기 20여 편이 결항하고 수백 편이 지연되는 등 주말 연휴 이용객들이 극</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운항</b></p>	<p>심한 불편을 겪음. 기상 악화로 공항 활주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착륙 시도 실패 및 회항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대기 승객들을 위한 안내 체계와 안전 시설 점검에 행정 부지사과 도지사가 직접 현장 지도 나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상 풍랑경보 발효로 제주~추자 등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되어 도서 지역이 고립되는 등 기상 재난에 따른 교통 단절 현상 심화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단계를 격상하고 전광판과 재난 문자를 통해 행동 요령을 전파하며 간판 파손, 가로수 쓰러짐 등 시설물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항 이용객들에게 사전에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거듭 당부함.</li> </ul> <p><b>- 제주 해상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나포 및 어업 질서 확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어획량을 허위로 보고하고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우리 수역 입어 규정을 위반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이 남해어업관리단에 의해 나포됨. 해당 선박은 어획 무게 단위를 조작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으로 수산 자원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담보금 4000만 원을 납부한 후 석방 조치되는 등 강력한 사법 및 행정 제재 부과임.</li> <li>· 중국 어선의 눈속임식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 검문검색 강화와 첨단 감시 체계 운용 확대 추진임. 남해어업관리단과 해경은 고도화되는 불법 조업 수법에 맞춰 단속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하여 우리 영해 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엄격히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며, 앞으로도 무허가 조업 및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지역·사회</b></p>	<p style="text-align: center;"><b>위반</b></p>	<p><b>-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유통 질서 교란 업체 적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 점검 결과,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외국산 수산물과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식당 등 위반 업체 15곳이 자치경찰단에 적발됨. 필리핀산 문어,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행위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위반 사안이 중대한 11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및 검찰 송치 예정임.</li> <li>·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 및 가격표 미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과 지도 감독 강화임. 자치경찰단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원산지 표시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시 단속 체계를 운영하고 고질적인 부정 유통 행위를 뿌리 뽑아 건전한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총력을 다함.</li> </ul> <p><b>- 현직 경찰관의 성비위 및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한 엄정 수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으로 강등 징계를 받았던 서귀포경찰서 소속 현직 순경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내부 감찰과 조사를 받는 중임. 징계 복직 후 단 한 달 만에 또다시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실랑이를 벌이고 성범죄 혐의까지 연루되는 등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와 도덕적 결함에 대한 도민 사회의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음.</li> <li>· 비위 경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관리 체계 전면 개선 촉구임. 경찰 당국은 해당 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며, 반복되는 비위 행위가 전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 사안임을 인식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처벌과 체계적인 복무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식 기강을 확립할 방침임.</li> </ul>

	<p><b>위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급대원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 사범 검찰 불구속 송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위협하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타격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한 가해자 2명이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수사되어 검찰로 넘겨짐.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소방관 폭행 사건이 연평균 7건에 달하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어, 소방 당국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의 엄정 대응 천명함.</li> <li>· 소방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법적 처벌 강화 논의와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임. 정당한 이유 없는 폭행과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카드뉴스와 다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구급차 내 영상 촬영 장비 활용 및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유도함으로써 대원들이 안심하고 구조 활동에 전념할 환경 조성임.</li> </ul> </li> </ul>
<p><b>지역·사회</b></p>	<p><b>건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튼튼백세 건강교실 및 프로젝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귀포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60세 이상 주민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건강 측정과 맞춤형 운동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시행임. 일상 속 신체활동 부족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영양 교육과 조리 실습을 병행하여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고 질병 악화를 방지하려는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의 일환임.</li> <li>· ‘건강 3·6·9 프로젝트’를 통해 체중 3kg 및 허리둘레 3cm를 감량하고 유지하는 실질적인 목표 달성 유도임. 체질량지수(BMI) 기준에 부합하는 주민들을 모집하여 집중적인 상담과 동기 부여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가동하여 비만율 감소와 만성질환 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선제적인 건강 증진 활동 전개임.</li> </ul> </li> <li>- 제주한라병원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선정 및 대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에서 제주한라병원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최종 선정되어 연간 2억 5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24시간 응급 진료 체계 구축에 나섬.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골든타임 확보가 치명적인 질환에 대해 제주대병원 권역센터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완성함으로써, 도내 어디서나 중증 응급 환자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임.</li> <li>· 급성기 치료를 넘어 재활과 예방까지 아우르는 ‘지역 완결적 의료 대응 체계’의 본격화임. 권역과 지역 센터 간의 환자 이송 및 전원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의료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타지역 전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하여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을 낮추려는 공조 체계임.</li> </ul> </li> <li>- 모바일 앱 활용 ‘탐나는 걷기 챌린지’를 통한 건강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귀포시 3개 보건소가 협력하여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해 매월 21만 보 걷기를 달성하면 탐나는전과 문화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챌린지 본격 운영임.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일상 속에서 걷기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비용 부담 없이 누구나 실천 가능한 걷기 운동을 통해 지역 사회 내 자발적인 건강 관리 붐 조성 목적임.</li> <li>· 걷기 배지 및 메달 수여,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챌린지 등 다양한 보상 체계 도입으로 지속적인 참여 유도임.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걸음 수 측</li> </ul> </li> </ul>

지역·사회	건강	정과 커뮤니티 활동으로 이웃과 소통하며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의 건강 특성 분석을 통해 걷기 실천율이 낮은 지역의 건강 지표를 개선함으로써 도민 전체의 건강 수준을 한 단계 향상하려는 취지임.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